

CONTENTS

OVERVIEW

- 발간사
- 심사 총평
- 주제 선정
- 공모 개요

WINNERS

- 수상자
- 수상作品集

GALLERY

2020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01
OVERVIEW

발간사

심사 총평

주제 선정

공모 개요



작품집을 발간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한 해였는데,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 등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여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의 의미가 중요해지면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주거는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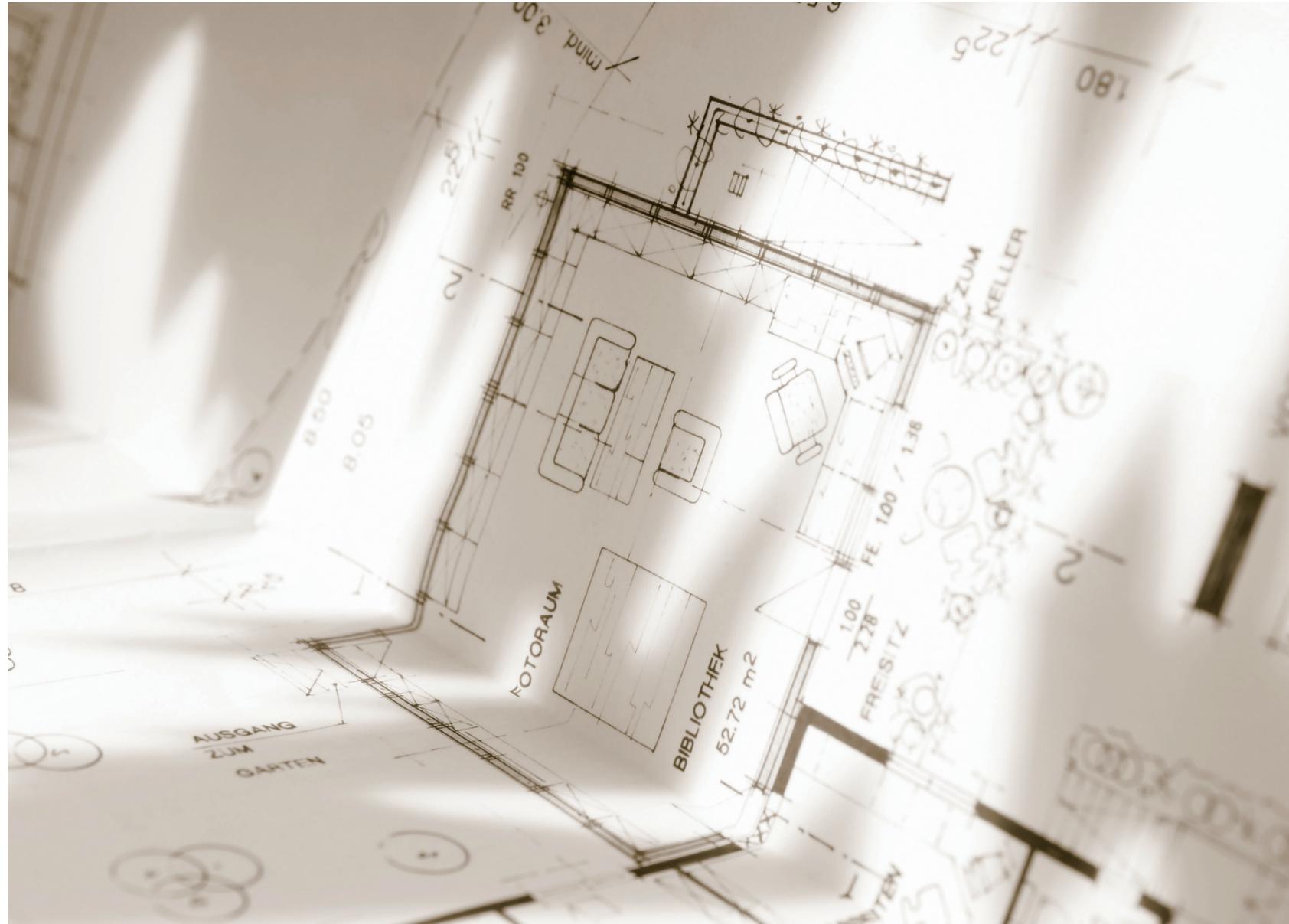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본연적 존재를 고려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의 주거방향은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공유주거”라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교류의 단절’을 공유로 풀어나가는, 모순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하는 주거의 모습을 고찰하게 하는 값진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예년보다 약 두 배 이상 많았고, 학생들은 참신하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보여 주었습니다. 제시해 준 아이디어 하나하나 LH 공동주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대학생 분들이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건축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건축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길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이끌어 주신 코디네이터 천장환 교수님과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로 훌륭한 작품을 선정해주신 남성택 교수님, 황세원 교수님, 신민재 대표님, 공모전을 진행하느라 고생한 주택기술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12 건설기술본부장 **강동렬** 김 동렬



심사 총평

공동주택은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망라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후대에 표상한다. 이번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시기에 개최되어 참가작의 수나 완성도가 예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으나 막상 제출된 360개의 작품들은 그 숫자뿐만이 아니라 수준 또한 기성 건축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 완성도를 가진 작품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 건축의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덧붙여진 난해하고 복잡한 조건들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건축적인 해법을 제시한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였고, 단위유닛의 개념과 디자인, 유닛들 사이의 결합방식, 주변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배치계획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킨 안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19작품 모두 진지한 고민과 실험적인 도전 및 완성도 높은 프리젠테이션으로 모두가 다 대상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심사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특히 입상에 들지 못한 많은 작품들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완성도 높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사위원들의 눈을 떨 수 없게 만들었고 수상작을 고르는데도 상당히 고심하도록 만들었으나 정해진 심사의 규칙 때문에 아쉽게도 본선에 오르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통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갈 많은 인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상여부와는 상관없이 참가자 모두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보낸 수많은 밤샘의 시간과 동료와의 치열한 토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노력은 그들의 앞길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시한번 입상자에게는 수상을 축하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코디네이터 **천장환** 교수 (경희대학교)

주제선정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공유주거

공동주택은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망라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후대에 표상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모더니즘 공동주거의 성공과 실패를 유니떼 다비따시옹과 프루이트 아이고 주택단지로 기억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건설된 서민용 집합 주거인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337세대가 한 건물 안에 있는 대규모 집합주거로서 당시에도 아파트는 존재했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집합 주거는 첫 시도였다. 23개의 각기 다른 평면타입, 필로티 구조, 옥상정원, 모듈러, 복층형 세대 등 그때까지 새로운 주거개념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7층과 8층에 위치한 호텔, 사우나, 임대 상가 등 상업 시설들은 주거시설을 복합화, 도시화해 최소의 투자로 한 건물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프루이트 아이고 주택단지는 1954년에 완공된 33개동의 11층 공공아파트에 2,762세대, 12,000여 명의 주민을 위해 계획되었다. 르코르뷔지에의 도시철학의 연장선으로, 이 단지는 처음에는 모더니즘의 정상이자 공동주택단지 설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점차 중산층, 백인들은 단지를 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렸고 그 결과 거주자 중 흑인 비율이 98%가 되었고 나중엔 전체 건물 33개동 중 27개동이 빈집으로 전락했다. 결국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22분, 단지는 발파되어 완전히 철거되었다. 후에 건축역사가 찰스 쟁크스는 이 순간을 "모더니즘의 종말"이라 불렀다.

2010년대 후반은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b), 공유 이동수단, 공유 오피스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유' 개념이 넘쳐났던 시기였고,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단순 부동산 임대업이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유경제' 관련 산업으로 지칭되는 등 공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정의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이다. 건축에 있어서도 가족구성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유주거가 생겨났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주택은 3,500곳이 넘고,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을 넘어 주거비 절감이나 정서적 안정감, 새로운 인맥 교류, 쾌적한 공간을 위해 다양한 조건과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공유와 소통이 중요해진 사회분위기와는 반대로 2020년 봄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점은 지났으나 전문가들은 다시금 유행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방역에 성공한 한국조차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간의 접촉을 삼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거리두기는 어떤식으로 실천되어야 할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이처럼 천재지변과도 같이 갑작스레 나타난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우리의 일상에 합당한 건축적인 해법이 있을까?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더구나 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함께사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 생활 속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밀도를 통해 공유주거의 장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한 공동주택은 어떠한 모습일까?

공모개요

목적 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력개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참가자격 4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1팀 2인 이내

작품접수 7

1차 제출
2020. 08. 05

2차 제출
2020. 09. 09

코디네이터 2

천장환 교수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대상지 5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10-5번지

면적
950㎡

작품심사 8

1차 심사
2020. 08. 14

2차 심사
2020. 09. 11

심사위원 3

황세원 교수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남성택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신민재 대표
AnL Studio 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청접수 6

접수기간
2020. 06. 15 - 07. 03

발표 및 시상 9

당선작 발표
2020. 09. 16

시상
2020. 10. 20

2020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02
WINNERS

수상자

수상 작품집

수상자

대상



Home-Commune

중앙대학교 | 이동영, 윤영록

금상



FOR : REST

계명대학교 | 김경중, 민영기

은상



틈 : 선택적 공유

경북대학교 | 류하은, 이가비

동상



다발적 확산의 공유주거

서울시립대학교 | 김상훈, 곽윤재



SSG.COM

경북대학교 | 박희종, 전채운

장려상



슬기로운 "집콕" 생활

아주대학교 | 박지연, 김수정



VOID & STAIRS

충남대학교 | 성지용



바람처럼

중앙대학교 | 지세인, 최지유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경북대학교 | 이우성, 김우진



Something Ambiguous Community

신라대학교 | 서성경, 송윤서

장려상



KEEP COMMUNITY,
KEEP DISTANCE

강원대학교 | 한현수, 노희찬



요즘 우리 사이

인하대학교 | 김은솔, 김강현



爰交僑(애교오) : 애매하고
교묘하고 오묘한 우리들

광주대학교 | 최연비, 백승엽



S()fe+a
: 안전한 공유공간 만들기

명지대학교 | 강진성, 박재연



Inter : Action

충남대학교 | 임재민, 최우혁



HANGING CUBE

부경대학교 | 장서윤, 박지윤



NET IN NETWORK

홍익대학교 | 김형준, 김덕호



앞으로의 주거

고려대학교 | 이현수, 정현진



STRETCH

금오공과대학교 | 송주영, 김나리

대상

Home-Commune

중앙대학교 | 이동영, 윤영록



황세원*

다양한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공동주택에 관한 참신한 공유에 대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공간 설계에 대한 고려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도시 맥락에서 엇갈린 매스의 배치와 함께 사이의 열린 중정을 비롯한 외부계단, 주민들의 마당, 세대내 정원 그리고 '알파스페이스'까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공간과 개인생활공간의 스펙트럼에서 위계를 달리한 다양한 외부공간을 완성도 높게 제안한 작품이다.

남성택*

작품의 계획적 기능성과 건축적 완성도가 매우 돋보인다. 두 개의 선형 볼륨들을 수평적으로 병렬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시 조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그렇게 생성된 내부 중정은 닫힌 중정 아트리움을 만든다. 각 주거 내부에서는 내부 중정을 향해 개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사이 공간인 중정/아트리움에 모든건축적 해법과 역량이 집중된다. 중심 공간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돋보이며, 단순함으로 복잡함에 대응하는 단순성을 시도하고 있다.

신민재*

도시와 공동주거에서 요구되는 상충적인 조건들을 단위유닛, 외부공간 계획,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완성도 있는 공간적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점이 매우 우수하다. 1960년대 이전부터 변화해 온 주거 유형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거에서 중요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다. 기본적인 방향으로 공간의 닫힘(close)과 열림(open)이 공동주거에서 어떤 공간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지 제시한 것은 건축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전략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유닛의 ㄷ자 동선계획을 제안하고, 단계적 위계에 따른 외부공간 계획을 중정을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주변 도시맥락과 관계까지 설정하여 계획했다. 주거유형의 시대적 변화와 현시점의 이슈를 바탕으로 건축개념 도출과 계획발전 과정을 완성도 높게 진행하였고, 표현수단으로 다이어그램, 평면, 단면 투시도, 입체적인 전개도, 시뮬레이션 등 건축적 표현을 일관성 있게 완성했다.

금상

FOR : REST

계명대학교 | 김경중, 민영기



황세원*

외부계단이라는 동선 요소를 과감하게 입면에 배치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외부공간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외부계단이 모든 매스들을 엮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제와 대지를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 프로세스와 주호 유닛 설계가 체계적으로 읽혀져 높이 평가하였다.

남성택*

세 개의 독립적 볼륨의 매스들이 병렬배치된다. 세련되게 서로 미끌어지듯 각 건물마다 입면이 개방된다. 건물 틈 사이로 계단들의 향연이 집중되며 움직임, 만남, 공유 등의 활동으로 채워나간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건축적 해법으로 오래된 건축장치였던 계단이나 복도가 여기서는 여러 방식으로 점유되는 외부의 공용공간으로 작동한다.

신민재*

도시의 공동주택에서 숲 또는 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재공간을 매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동주거 공간구성을 제안하였다. 지역에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제해결을 고민한 도시적 제안이 눈에 띈다. 지상층에 광장을 계획하면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제안한 것은 계획한 공간 속의 다양한 행위를 함께 고민한 것으로 좋게 평가했다. 다원화된 사회구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기본 배치방향을 유지하며 적용한 것과 OPEN SPACE를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공유공간을 제공한 것은 건축 계획적으로 완성도 있게 풀어냈다. 중정을 향한 외부의 다양한 동선과 투시성 높은 외부계단의 계획은 식재계획과 어울려 인상적인 건축물의 개성을 만들어 냈고, 시뮬레이션은 그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은상

틈 : 선택적 공유

경북대학교 | 류하은, 이가비



황세원*

상층부는 주변 도시맥락과 결을 같이하면서도 저층부의 매스를 ‘틀면서’ 지상부 보행환경에 적절한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한 점이 인상 깊었다. 선택적 ‘틈새’ 공유공간들을 통해 각 주호 유닛들을 분리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독립적인 공간에서부터 다양한 교류를 담는 공유공간까지 세심하게 계획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남성택*

주변 맥락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는 높이의 건축 매스가 제안되지만, 그것을 잘게 분할하며 도시적 위화감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킨다. 또 다양한 틈사이의 외부공간들도 만들어낸다. 이 사이 공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건물의 내외부를 중재, 연결시킨다. 또 선택적 공유라는 전략적 개념이 집중되는 중심 공간이 된다.

신민재*

대상지의 형태와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주어진 프로그램을 배치하면서 생성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획한 것이 특징적이다.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삽입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저층부의 공간형성과 동선을 제안한 것은 도시적 맥락에서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지향해야 할 태도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주거유형의 시대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유형을 참신하게 제안하였다. 다양한 입주자의 생활과 행위들을 시간단위로 설정하고, 개별공간의 이용패턴을 분석/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닛타입의 다양성과 세부적인 공간계획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선택적 이용과 선택적 이동을 계획한 섬세함이 인상적이다.

동상

다발적 확산의 공유주거

서울시립대학교 | 김상훈, 곽윤재



황세원*

상당히 규모있는 전체 매스가 주변 도시 맥락과 잘 이어지면서 내부의 중정공간들을 안정감 있게 잘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중간부의 매스 지상부를 조금 더 여유있게 열어주고 계단을 단순한 동선 및 형태적인 요소에서 한발 나아갔다면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상호관계성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내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선택적 공유 '마당'과 '마루'들이 전체적으로 밀도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남성택*

건축이 불규칙성이 두드러진 부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선형 메가스트럭처인 스템(stem)의 방식을 연상시키는 직각체계의 지그재그식 형상이 입체적으로 확보한다. 인간적 스케일의 여러 마당들을 생성한다. 건축 역시 외부공간과 접한 입면이 늘어난다. 다이어그램처럼 명료하고 단순한 볼륨으로 마무리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민재*

전통적인 도시공간 요소인 길과 마당의 재해석이 인상적이다. 단계적 공유와 확산의 공유라는 선택적인 상황과 표면적인 거리두기와 위로의 거리 줄이기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거주자의 운동성과 행동반경을 통해 Z축의 동선으로 확장시킨 특징에 좋은 평가를 했다. 평면적으로 지상층에 계획한 마당과 접한 2차 형태의 건축형태는 단순하면서도 움직임에 따른 수직적 시전교차와 공간의 중첩은 공간의 다양성과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입체적 공유공간으로 저층부/고층부/사이공간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거유닛을 구성하여 좋은 평가를 했다. 공동주택을 생활공유에서 생산공유와 문화공유의 복합적인 공간으로 해석한 점은 확장성과 참신성이 보인다.

다발적 확산의 공유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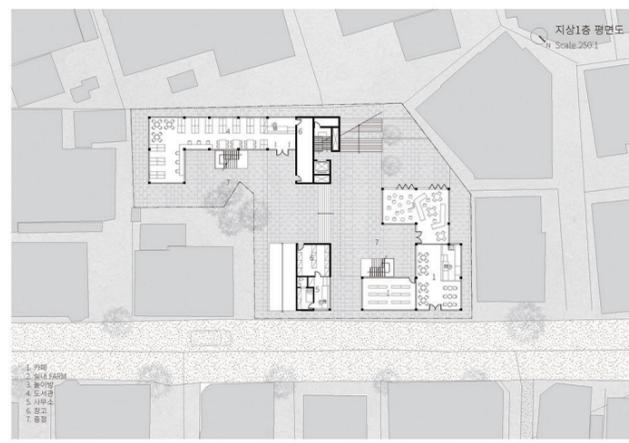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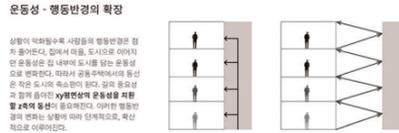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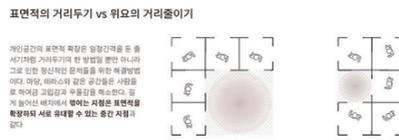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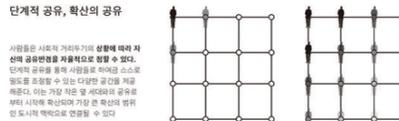
대지면적 : 950㎡
건축면적 : 473.6㎡
연면적 : 2212.4㎡
용적률 : 49.85%
건폐율 : 49.85%
주대모수 : 3.550
규모 : 지상 6층, 지하 1층



INTRO -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유욕망의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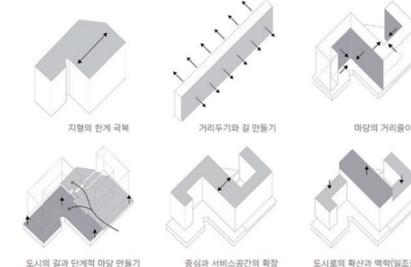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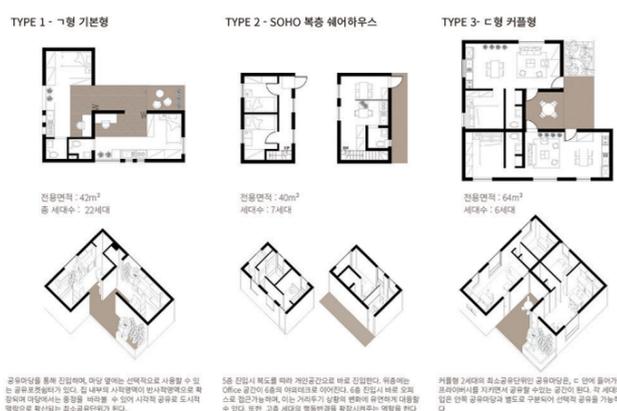
SITE ANALYSIS _ 열린 위계의 공간



MASS PROCESS _ 도시의 유입



시선주거의 최소공유단위 - 선택적 공유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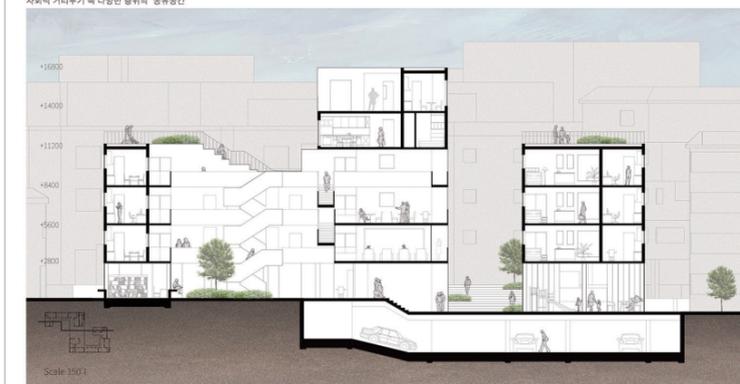
생활공유의 확산



문화공유의 확산



위요의 마당과 도시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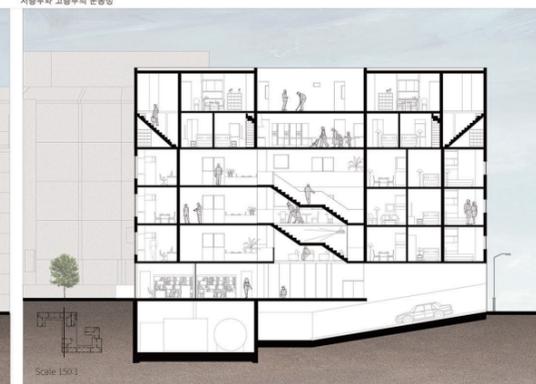
생산공유의 확산



운동성 - 행동반경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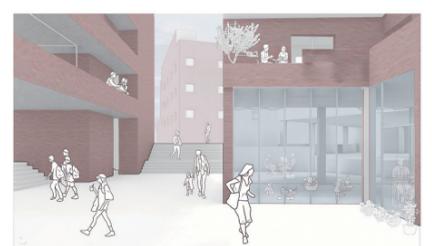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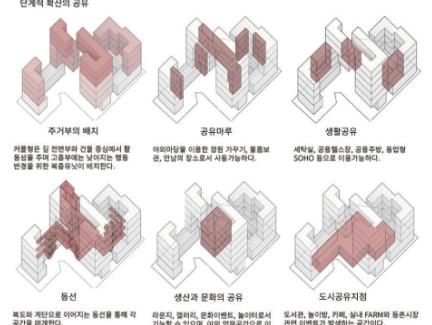
운동성 확장의 단계적 전이



입체적 공유공간



프로그램&동선



도시적 확산공유 : 시장과의 연결과 중정을 둘러싼 놀이공간, 카페



생산적 확산공유 : 행동반경이 중첩되는 다목적공간, 야외오피스의 중심



문화적 확산공유 : 공유마당과 옥상데크로 이어지는 문화적 확산

동상 **SSG.COM**

경북대학교 | 박희중, 전채운



황세원*

전체 대상지에 분절된 매스 사이를 가로와 오픈스페이스로 열어주면서 도시형 커뮤니티를 조화롭게 대응하고 구현해낸 작품이다. 모듈형 공용공간은 주호평면층 사이에 배치시켜 적절한 분리와 연결을 효율적으로 안으로 제시하였고 다각적인 공용공간의 종류와 배치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코로나시대에도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남성택*

부지의 외곽선을 따라 닫힌 수직 입면을 가진 건축 매스는 주도로면 방향으로 스스로 갈라진 듯 내부를 드러낸다. 그 사이로 흐르는 폭포처럼 개방적인 테라스의 입면이 극적이다. 외부 공유 공간들을 다양하게 처리하고 개인화된 공간 영역 설정도 흥미롭다. 다만 일부 열린 입면의 조성에 있어 나름의 건축적 질서에 따른 절제가 필요해 보인다.

신민재*

공용공간 및 공유공간의 소규모화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공용공간과 공유공간의 분절과 세분화를 통해 작아진 단위공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선택적 조합을 통해 활용성을 높인다는 전략이 인상적이다. 개인공간 사이에 매개공간을 두고, 시간적 수용성 개념으로 복합적인 이용률을 높였다. 가변적인 공간 요소의 기능성은 재고할 부분이지만, 가변성을 통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수용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주변 상황을 고려한 광장배치와 통과동선을 계획한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도시적 요소와 생활공간의 경계, 생활공간내부의 복도, 공동주택 내적 마당을 건축적 공간요소로 고려한 점은 앞선 도시계획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좋은 평가를 했다.

SSG.COM

Small Sharing Generates COMMunity

: 소규모 공유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낸다.

"STUDY-MUNNITY(학업공동체)"
대학생 > 취업준비생
비대면 강의는 강의내용과 불거진 질문과제를 해결하는 소규모 그룹 스터디룸의 공간이다. 취업준비생에게 넷에는 개인공부, 밤에는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모임공간 및 피드백의 공간이 된다.

"EDU-LIBRARY(주민책방)"
신혼부부 > 대학생
현재 기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채워지는 도서공간 및 주민 공유서재이다. 낮에는 영어와 일어의 독서 및 교육공간이여 밤에는 주민이 몰린 책방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최근 독서 취미를 공유하는 독서모임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OPEN KITCHEN(공유주방·식당)"
사회초년생 > 대학생 > 신혼부부
1인 주거 및 타인과의 식사가 도한 사회적 분위기로 세대 융선을 필요에 따라서 2인 이상 주문하고 같이 먹으며 전반을 즐긴다. 외부복도공간으로 열린 복외 차배류 시설에서 소규모 파티와 신혼부부가 차원생들에게 전하는 주일 클래스를 통해 이웃소통을 높인다.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역3동 610-5번지
용도 지대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950㎡
건축면적 : 470.25㎡
면적비율 : 2,213.90㎡
건폐율 : 48.53%
용적률 : 232.94%
세대수 : 35(22+13세대(2개동))
주택호수 : Unit A (21.28㎡) 26세대
 Unit B (33.59㎡) 44세대
 Unit C (44.80㎡) 5세대
용도별면적 : 주거용도 770㎡ (34.77%)
 공용공간 332㎡ (33.15%)
 공용(기타) 1112㎡ (50.23%)
층 수 : 지하1층 ~ 지상6층(4개동)
주차대수 : 20대

"SCREEN ROOM(영상실)"
대학생 > 사회초년생
생활속 가벼이 두기의 영역으로 디지털의 영역이 생활을 일부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집에서 혼자 보지 않고 함께 시청하며, 스포츠경기를 함께 현상 시청하는 등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멀티미디어 자습실로서 주민들은 녹화프로그램, 다양한자료, 교육방송 등의 다양한 영상물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SYNOPSIS"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 시대의 세상"

"CONCEPT 변화된 공용공간의 활용성"
"혁신 가치를 유지하는 공유의 새로운 공간개념 도입하기"

"STRATEGY 분리하면 오히려 좋아"
"분리의 역할: 개인공간은 더욱 사적으로, 공용공간은 선택적으로"

"UNIT PLAN 개인공간의 확대와 생애주기형 유닛 구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공간과 규모별 유닛 형태를 제공한다"

"SITE ANALYSIS"
"수원으로 피쳐나가는, 맑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가능성"

"SYNOPSIS"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 시대의 세상"

코로나 사태 이후, 만연한 비대면, 스포츠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생활속 가벼이 두기의 영역으로 디지털의 영역이 생활을 일부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집에서 혼자 보지 않고 함께 시청하며, 스포츠경기를 함께 현상 시청하는 등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멀티미디어 자습실로서 주민들은 녹화프로그램, 다양한자료, 교육방송 등의 다양한 영상물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CONCEPT 변화된 공용공간의 활용성"
"혁신 가치를 유지하는 공유의 새로운 공간개념 도입하기"

개인공간의 확대와 생애주기형 유닛 구성을 통해, 생활속 가벼이 두기의 영역으로 디지털의 영역이 생활을 일부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집에서 혼자 보지 않고 함께 시청하며, 스포츠경기를 함께 현상 시청하는 등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멀티미디어 자습실로서 주민들은 녹화프로그램, 다양한자료, 교육방송 등의 다양한 영상물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STRATEGY 분리하면 오히려 좋아"
"분리의 역할: 개인공간은 더욱 사적으로, 공용공간은 선택적으로"

개인공간의 확대와 생애주기형 유닛 구성을 통해, 생활속 가벼이 두기의 영역으로 디지털의 영역이 생활을 일부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집에서 혼자 보지 않고 함께 시청하며, 스포츠경기를 함께 현상 시청하는 등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멀티미디어 자습실로서 주민들은 녹화프로그램, 다양한자료, 교육방송 등의 다양한 영상물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UNIT PLAN 개인공간의 확대와 생애주기형 유닛 구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공간과 규모별 유닛 형태를 제공한다"

대학생_1인주거 Unit.A 사회초년생_직장 Unit.B 신혼부부_가정 Unit.C

3.300㎡ | 2.000㎡ | 3.300㎡ | 1.500㎡ | 1.800㎡ | 3.300㎡ | 2.000㎡ | 2.400㎡

개인공간의 확대와 생애주기형 유닛 구성을 통해, 생활속 가벼이 두기의 영역으로 디지털의 영역이 생활을 일부 선택적으로 공유한다.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집에서 혼자 보지 않고 함께 시청하며, 스포츠경기를 함께 현상 시청하는 등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멀티미디어 자습실로서 주민들은 녹화프로그램, 다양한자료, 교육방송 등의 다양한 영상물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SITE ANALYSIS"
"수원으로 피쳐나가는, 맑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가능성"

수원으로 피쳐나가는, 맑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수원으로 피쳐나가는, 맑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수원으로 피쳐나가는, 맑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SITE PLAN"
"시장과 도심으로 이어지는 주거단지의 생활가로, 그 속의 이야기"

"2ND FLOOR PLAN"
"각 주동별 계층과 사용형태에 따른 프로그램 조성"

"4th FLOOR PLAN"
"모든 단위를 위한 이용가능한 복합 공용공간 배치"

"CORRIDOR-공유를 연결하다"
"동선체계로서의 복도를 넣어진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SECTION PLAN"
"공간별 레벨차이의 지하주차장 계획"

"SYNOPSIS"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 시대의 세상"

"CONCEPT 변화된 공용공간의 활용성"
"혁신 가치를 유지하는 공유의 새로운 공간개념 도입하기"

"STRATEGY 분리하면 오히려 좋아"
"분리의 역할: 개인공간은 더욱 사적으로, 공용공간은 선택적으로"

"UNIT PLAN 개인공간의 확대와 생애주기형 유닛 구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공간과 규모별 유닛 형태를 제공한다"

"SITE ANALYSIS"
"수원으로 피쳐나가는, 맑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가능성"

"DESIGN PROCESS"
"언어에 따른 연속적인 배치방식"

Layer 01 : 광장 (Open Space)
Layer 02 : 경계 (Boundary)
Layer 03 : 복도 (Corridor)
Layer 04 : 가로 (Public Path)
Layer 05 : 마당 (Common Room)

"CORRIDOR-공유를 연결하다"
"동선체계로서의 복도를 넣어진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가능성"

Reading Corridor, Green Corridor, Share Corridor, Cafe Corridor

"SECTION PLAN"
"공간별 레벨차이의 지하주차장 계획"



장려상

요즘 우리 사이

인하대학교 | 김은솔, 김강현



요즘 우리 사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인해는 새로운 생활 속 커뮤니티 새로운 생활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인다. 사회적 생활 방식의 변화는 인간화될 수 있는 생활 방식에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에 따라 우리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에 따라 우리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청년들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확장된 개인공간, 사생활을 얻을 수 있는 가까운 공간,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

확장된 개인공간, 사생활을 얻을 수 있는 가까운 공간,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넓어진 개인공간. 휘황대로 선택가능한 주거유닛

단층 유닛 A, 단층 유닛 B, 복층 유닛 C, 복층 유닛 D

단층 유닛 A, 단층 유닛 B, 복층 유닛 C, 복층 유닛 D

사이공간,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확장되는 공유공간

첫번째, '동과 동 사이', 두번째, '주거유닛과 유닛 사이', 세번째, '층과 층 사이', 네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첫번째, '동과 동 사이', 두번째, '주거유닛과 유닛 사이', 세번째, '층과 층 사이', 네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살아갈 공간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살아갈 공간

단위 유닛들의 또 다른 사용 가능성 제시

1. 내부가변형 유닛, 2. 모듈러 광범의 적용

1. 내부가변형 유닛, 2. 모듈러 광범의 적용

다시 가까워질 우리 사이

A - 'A' 단면 투시도

메스 프로세스

UNIT TYPE A, UNIT TYPE B, UNIT TYPE C, UNIT TYPE D

1F COMMUNITY SPACE, 2F COMMUNITY SPACE, 3F COMMUNITY SPACE

장려상

愛交悟(애교오) : 애매하고 교묘하고 오묘한 우리들

광주대학교 | 최연비, 백승업



愛交悟 애교오

애매하고 교묘하고 오묘한 우리들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삶과 공유하는 삶에서 외톨이가 될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개인적인 사회가 가속화 되고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완전히 단절되기 어렵다.
개인 이기적이지 우리들의 적절한 역할이다.
이 애매한 문제 앞에서 다시금 우리는 재발명을 했다.
원래의 집을 넘어 교묘하게 짜여진 공간.
오묘한 우리들의 거리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찾아냈다.

원래 지어진 본래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한 주택구조(일과복)

여유나 다양한 활동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를 두고 앉고 있는 가변적 복도도 활용

소규모 공용공간을 두어 가까운 이웃끼리 같이 휴식을 나누어 먹는 공간으로 활용

사이트분석

현장답사를 통한 사이트분석

배치주안점

주거의 패러다임 전환

코닝 평면해석의 흐름

유닛

유닛면적 및 세대수

공유식당

작업실

주거공부

개요

대지면적 : 950m²
건축면적 : 387m²
연면적 : 2900m²
용적률 : 235.47%
건폐율 : 50%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용도별 면적
- 용도면적 : 1202m²
- 주차면적 : 740m²
- 주차면적 : 1035m²
(연면적 34.7%)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생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유주택의 필요성 및 방안 필요
- 공유를 중요시하는 공동주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커뮤니티 문제 해결 필요

공유식당, 작업실, 주거공부, 공유식당, 작업실, 주거공부

모듈을 활용한 설계계획

1800 * 2300의 기본 모듈을 가지고 다양한 평면계획

다양한 공간계획

이웃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세스

대지의 주변을 고려한 배치를 하기

모듈에 따른 배치를 결정

비용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공간 연출

분할된 배치를 거점으로 연결

KeyPlan

입단면도

배치도

지상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지상3층 평면도

지상4층 평면도

지상5층 평면도

지상6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지하3층 평면도

지하4층 평면도

지하5층 평면도

지하6층 평면도

황세원* 과도한 주차장 입구로 인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의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유닛과 공용공간들의 계획이 돋보인다.

남성택* T자 형태의 단순한 배치로 비교적 복잡한 주변 맥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건축의 각 부분들 곳곳마다, 설계자의 세밀하고 주의깊은 고심의 흔적이 발견된다.

신민재* 주거공간에 대한 변화요구를 테라스 공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해결하면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계획도 고려하였다.

장려상

S()fe+a : 안전한 공유공간 만들기

명지대학교 | 강진성, 박재언



Prologue "코로나 팬데믹 시대"
 찾아버린 일상, 당연했던 것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들
 Site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장소"

Strategy 1 "안전한 동선 만들기"
 기존 주거의 동선 체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안전한 동선 체계

Strategy 2 "밀도 나누기"
 Step 1. 동선 분리
 Step 2. 클러스터 형성
 Step 3. 공유공간 내 동선 체계

Cluster & Unit "다양한 생활패턴의 이용자를 결합"
 Cluster "시간에 따라 공유공간의 밀도를 조절한다"
 "2 + 2 Cluster"
 "1 + 2 + 1 Cluster"

Concept "안전과 함께 +a"
 안전과 함께 +a

황세원* 분절된 매스간의 간격이나 배치가 다소 아쉽지만 시간과 공간의 밀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이다.

남성택* 동선체계와 밀도분할의 고민은 결국 클러스터 개념과 만난다. 세장한 형태의 단위 세대 유닛을 기반삼아 매우 얇은 볼륨의 건물들을 만들었다. 그러한 특징을 약화시키는 지붕 처리가 아쉽다.

신민재* 밀도의 재분배를 통해 안전하면서 공동 관계를 유지하는 동선을 구성하였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다양한 유닛 타입 계획으로 대응하였다.

Ground Plan "안전하고 활기찬 보행로"

Design Process "안전한 주거 형성하기"
 STEP 1. 안전한 밀도 형성하기
 STEP 2. 안전한 보행로 형성하기
 STEP 3. 휴먼 스케일에 맞는 보행로 형성하기
 STEP 4. 공유공간 내부로 형성하기

Typical Plan "안전성이 확보된 공유공간"

Isometric "클러스터 내 공유 방법"

Basement Plan "저밀도, 그리고 공기의 순환"

Section Plan "우리가 만나는 방법"

SCENE 1 "도시로 열린 가로"

SCENE 2 "공유공간이 만드는 새로운 공유"

SCENE 3 "클러스터 내 수직적 관계와 1인 예약공간"

SCENE 4 "주거공간의 확장"

장려상 Inter : Action

충남대학교 | 임재민, 최우혁



PROLOGUE : 언택트(UNTA)가 아닌 선택적 언택트(CONTACT)의 시대

뉴 노멀(Normal)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사람들은 비대면, 즉 언택트(UN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트렌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친근함 같은 감정과 교류를 언택트가 아닌 언택트가 대체할 수 있을까? 뉴노멀이라는 신호에 의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맞이하려고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것은 아닐까? 뉴노멀 시점에서 언택트와 언택트가 갖는 영향을 살필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변화된 주거의 방식을 제안한다.

대지면적 : 950㎡
건축면적 : 473.72㎡
면적비 : 2257.34㎡
건적률 : 49.86%
용적률 : 237.61%
주거호수 : 36호
규모 : 7호

Inter : Action

사이공간에서의 선택적공유를 통한 상호작용
(INTER) (ACTION) (INTERACTION)

CONCEPT : 공간의 위계를 통한 선택적 진입 동선과 공유

수평적 위계

공간 진입에서의 수평적인 위계는 보행자가 공간에 머물 어울을 만들어주고 다른 공간으로의 동선을 이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동선 및 공간적 밀도를 높여준다.

수직적 위계

공간의 수직적 위계는 필지의 내외부, 건물과 내외부 뿐만 아니라 주거의 내부에서도 공간의 분리를 인식시켜주고, 사생활을 차이감 작자 다른 공간에서 진입 동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사이공간의 형성

수직, 수평적 공간의 위계가 만들어낸 사이공간은 동선의 시작점 또는 교차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서로 다른 위계로 향하는 동선들은 가시적인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맺게 된다.

UNIT DESIGN CONCEPT P : Private space / C : Community space

COMMON SHARE HOUSE

보통 셰어하우스의 경우, 개인 주거공간 진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용공간을 지나 개인 주거공간으로 동선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공용공간을 지나지 않고 바로 개인 공간에 동선이 분기되는 배치를 도입 동선은 하나로 정해져있어 수직적 진입 공간의 밀도가 높아진다.

Inter : Action SHARE HOUSE

Inter : Action 셰어하우스의 유닛은 각각 개인 주거공간 진입을 위한 배치, 공용공간을 개인공간과 사이에서 개인이 선택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따로 있다. 개인 주거 공간의 용기별 경우 공용 공간 진입 구조를 사용하여 주거 진입의 밀도를 낮추고 배치면(면적)을 통해 배치를 배치하여 위계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UNIT PLAN

Type A. 신혼부부(2인 주거)
전용면적 : 53.8㎡ 세대수 : 4세대
Inter : Maru
다른 주거단위의 선택적 공유를 할 수 있는 마루를 A와 B 유닛의 사이공간에 배치함

Type B. 개별진입 셰어(4인 주거)
전용면적 : 122.6㎡ 세대수 : 16세대

Type C. 단일진입 복층형 셰어(4인 주거)
전용면적 : 123.7㎡ 세대수 : 8세대

Type D. 중별 진입 복층형 셰어(4인 주거)
전용면적 : 153.1㎡ 세대수 : 8세대

유닛 진입의 출입구는 하나의 공용공간을 거쳐 개인 주거공간으로 동선이 아닌 공용공간과 개인 주거공간의 사이를 세면대가 있는 복층공간으로 만들어 선택적으로 자신의 동선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줌 (공용공간 - 거실, 주방, 베란다, 세탁실)

중별 출입구를 배치하고 두 층의 공용부채 공용공간을 배치하여 공용공간과 공용공간과 개인 주거공간의 사이를 세면대가 있는 복층공간으로 만들어 선택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줌 (공용공간 - 휴게실, 화장실, 거실, 베란다, 세탁실)

황세원* 개인공간 진입 후 공용공간의 선택적인 이용이라는 흥미롭고 이러한 공간 특성이 전체 설계와 특히 입면에서 잘 표현되었으면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남성택* 선택적 공유공간의 고민, 바닥레벨을 다양한 단위세대 유닛 설계가 흥미롭다. 주변 맥락의 고유한 상황에 대응하는 각 입면들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요구된다.

신민재* 유닛 상호간에 사이공간을 제안하고 가변적이고 선택적인 활용이 가능한 배치와 공간구성을 계획하였다.

DESIGN PROCESS

STEP 1 #_수직 위계 정의 **STEP 2** #_진입공간 정의 **STEP 3** #_코어 & 중정 형성 **STEP 4** #_스카이라인 정의 **STEP 5** #_파사드 & 볼륨 조절

편안 후퇴와 후면의 레벨차이를 감안하여 입지 내외부 유닛의 레벨을 고려하고, 필지의 남북축으로 차원차이를 보정함으로써 주거단, 배후거리를 위한 상입사설을 배치

보행 단계를 동선과 밀도 고려하여 보행 동선을 양분화하고 수직 공간을 계획, 유닛 및 공용공간을 고려하여 복층형 레스 홀을 수 선면이 둘러싸이고 빛이 투과되는 구조를 도입

차량,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코어 형성, 주거용 동선을 고려하여 복층형 레스 홀을 수 선면이 둘러싸이고 빛이 투과되는 구조를 도입

주거용 동선을 고려하여 복층형 레스 홀을 수 선면이 둘러싸이고 빛이 투과되는 구조를 도입

주거용 동선을 고려하여 복층형 레스 홀을 수 선면이 둘러싸이고 빛이 투과되는 구조를 도입

주거용 동선을 고려하여 복층형 레스 홀을 수 선면이 둘러싸이고 빛이 투과되는 구조를 도입

PLAN

1st Floor Plan (1층 기준 배치면도)

1. 코어 A (G.L + 13,300)
2. Lounge (G.L + 13,300 ~ 14,900)
3. 화상강의실 (G.L + 14,900)
4. 공용 선택 마루 (G.L + 14,900)
5. 코어 B (G.L + 14,900)
6. 카페 (G.L + 13,900)

2nd Floor Plan (주거 유닛 배치)

1. Unit B 셰어하우스 거실 (G.L + 16,500)
2. Unit B 셰어하우스 공용주방 (G.L + 18,000)
3. Unit A & Unit B Inter - Maru (G.L + 18,000)
4. Unit C '사' 공용공간 (G.L + 18,000)

6th Floor Plan (옥상 활용 공유공간 & 주거)

1. 풀타임 박스 텃밭 (G.L + 31,500)
2. 야외 바스탕장 (G.L + 33,000)
3. 야외 연회실 (G.L + 33,000)
4. 연회실 공용 주방 (G.L + 33,000)

ISOMETRIC

옥상 정계 공유 마당
'영단' '소박' '향배'
수직 레벨의 위계를 이용한 옥상 정계 커뮤니케이션 공간

주거/배후거 공용 카페
수직/수평 공용 마당
공인 입자 커뮤니케이션

PERSPECTIVE

카페 & 공용 선택 마당 # 주거전 전용 Multi - Flex Lounge # 옥상활용 Plant Box 텃밭 & 연회장

SECTION

ROOF G.L. + 36,000
10F FLOOR G.L. + 33,000
9F FLOOR G.L. + 30,000
8F FLOOR G.L. + 27,000
7F FLOOR G.L. + 24,000
6F FLOOR G.L. + 21,000
5F FLOOR G.L. + 18,000
4F FLOOR G.L. + 15,000
3F FLOOR G.L. + 12,000
2F FLOOR G.L. + 9,000
1F FLOOR G.L. + 6,000
0F FLOOR G.L. + 3,000

ROOF G.L. + 36,000
10F FLOOR G.L. + 33,000
9F FLOOR G.L. + 30,000
8F FLOOR G.L. + 27,000
7F FLOOR G.L. + 24,000
6F FLOOR G.L. + 21,000
5F FLOOR G.L. + 18,000
4F FLOOR G.L. + 15,000
3F FLOOR G.L. + 12,000
2F FLOOR G.L. + 9,000
1F FLOOR G.L. + 6,000
0F FLOOR G.L. + 3,000

장려상

슬기로운 "집콕" 생활

아주대학교 | 박지연, 김수정



슬기로운 "집콕"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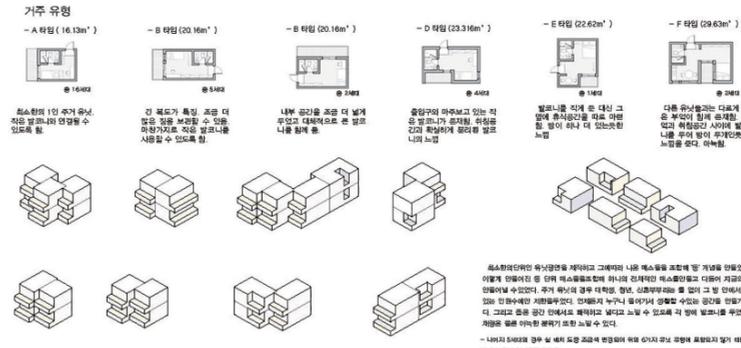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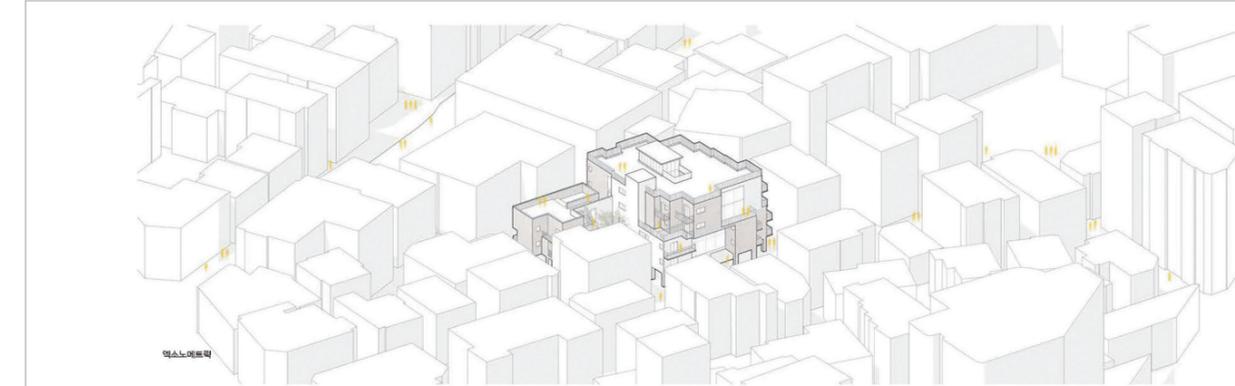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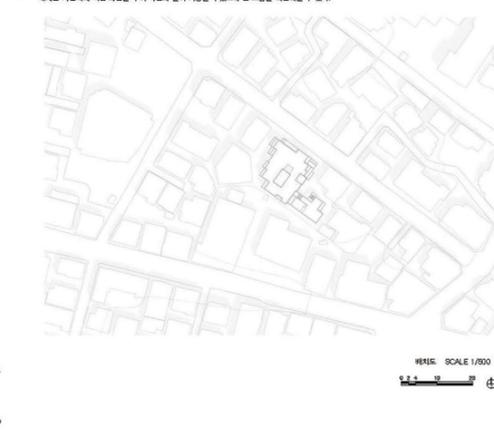
콕은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with 코로나'의 시대가 되어있다. 현재의 새로운 환경의 속 속에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할 때, 과연 어떤 시대에서의 공유주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공유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콕' 존재 의해 공유하면서도 보기가 되는 모습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__ SITE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10-5번지
- __ 대지면적 : 950 m²
- __ 연면적 : 2148.6 m²
- __ 용적률 : 220%
- __ 건폐율 : 52.5%
- __ 층수 : 지하1층, 지상 5층
- __ 세대 수 : 35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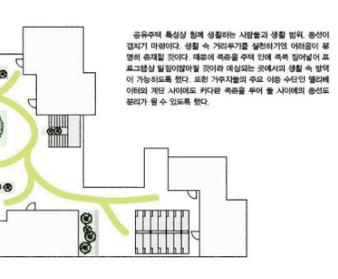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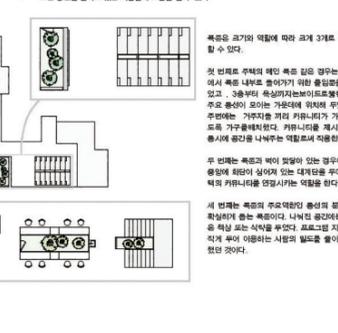
평면도 _ SCALE 1/300



② 사람들로 거대한 거대한에서 주로 일하는 주부들을 보거나 휴식을 취한다. 이곳은 공용구역 내부 인양 화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거대한이 이를 확인을 부여 콕으로 할이 가능할 수있도록 한 요소를 확인해볼 수 있다.



③ 1층 및 마당에는 거대한에 공유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주변에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황세원* 주호 유닛들이 형성하는 '콕존'의 개념이 흥미롭고 단면적 고려들로 중정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남성택* 상당히 두터운 매스의 건축으로 그 내부에 비이상적인 깊이의 공간을 갖는다. 이 공간들은 다양한 공유 공간들로 쓰이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수직 자연채광 방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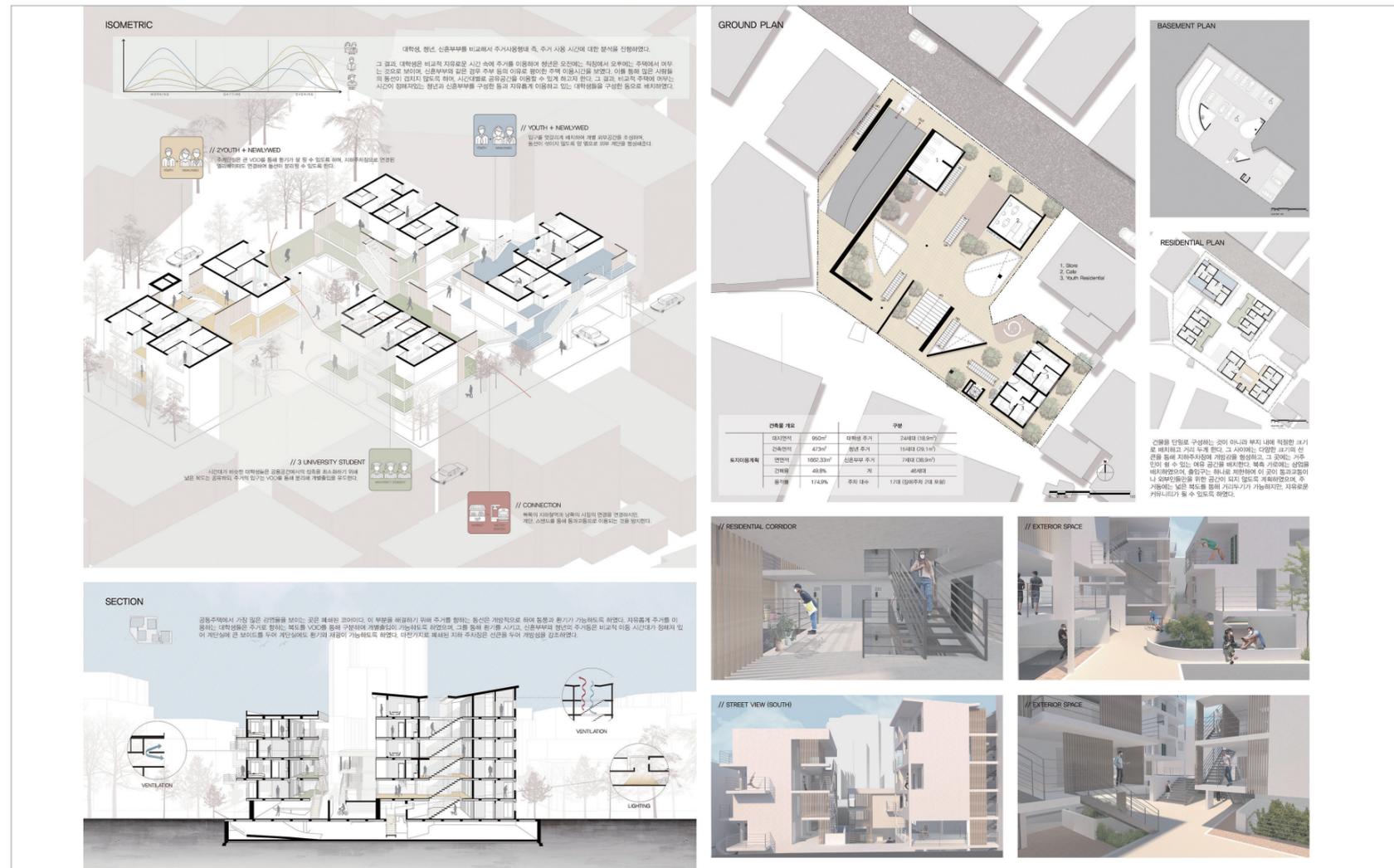
신민재* 공용공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공간계획으로 표현하고, '집콕' zone 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였다.

장려상 바람처럼

중앙대학교 | 지세인, 최지유



황세원* 독립적 주거동들의 배치계획과 개방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보이들의 활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남성택* 여러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시도한 다양한 단위세대 유형의 고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조금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신민재* 이용자의 시간대별 활동을 분석하여 선크, 열린코어, 개별출입을 공간적 해결방안으로 도출하고 일관성있게 계획하였다.



장려상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경북대학교 | 이우성, 김우진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

불거지한 만남을 통해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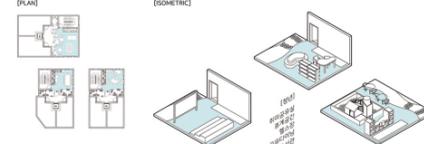
공공으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과 접촉을 불거지해, 더 나아가 물리적 요소로 자리잡게 한다. 불거지한 접촉 공간(노드)과 고밀한 만남 공간(공용공간)은 만남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다.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공간의 존재감을 파악하고, 한 세대에 맞는 적절한 공유자의 공 방을 제공한다.

수직 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가장 많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입구까지도 편하게 꺼지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기존 공용수직 이동 공간은 일도와 거의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주거단들이 구분 없이 사용된다. 이는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공유로서의 역할을 반감시킨다.

이러한 계단(안)은 1) 인구 밀도 분산을 위해 물리적 접촉의 빈도나 분산, 상을 나누고 분산하여 일체적으로 NODE의 수를 늘리고 2) 고밀도 인접에 특성을 형성하여 만남을 용이하게 해주고 공유 공간에서 주거 공간으로 들어갈 BUFFER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저지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또한 고려하여 3) 가운데에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SKIP-FLOOR 보다 넓은 BUFFER-ZONE을 통해 분산을 제공하고 일도를 통제하게 하였다.

분산 배치와 형성된 버퍼(BUFFER ZONE)는 기본적인 주거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유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만남과 활동 또한 제공하여 수층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 대상을 생각하여 각 대상에 맞는 공간과 여가공간, 주거공간 제공을 공유주거형인 한 생활을 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계단 적용



다양한 층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엘리베이터 입도를 격화시켜 만남의 장을 격화시킨다. 계단 입도를 격화시켜 만남의 장을 격화시킨다. 계단 입도를 격화시켜 만남의 장을 격화시킨다.



공용 공유공간의 분산: 공용 공유공간의 분산은 만남의 장을 격화시킨다. 공용 공유공간의 분산은 만남의 장을 격화시킨다. 공용 공유공간의 분산은 만남의 장을 격화시킨다.

Problem and Solution, Ventilation, Bird-eye view, Mass process, Buffer zone, and other architectural diagrams and text explaining the design philosophy and technical details of th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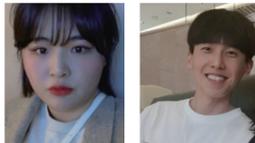
- 황세원* 획일적인 입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공용공유공간에 대한 분절과 분리 방식이 훌륭하게 제시되었다.
남성택* 공용공간을 보조 공유공간과 공용 공유공간으로 구분하고 바닥 레벨의 차이를 부여해 단절적이면서도 연속적인 관계를 만든 점이 주목을 끈다.
신민재* 커뮤니티 공간을 소규모로 분할하면서도 높이차이와 공용공간의 동선을 이용하여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구성을 계획하였다.

Architectural drawings including site plan, floor plans (2nd, 3rd, 4th, 5th), sections, and elevations, along with descriptive text for each drawing.

장려상

Something Ambiguous Community

신라대학교 | 서성경, 송윤서



Something Ambiguous Community

모호한 경계 속 선택적 의사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동주거 제안

Prologue ... 변화하는 주거 패러다임
2020년 현재까지로 인해 생활 4 가지가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특히 도시의 특색이 사라진 공간에서 사는 것이 많아 되고 있다. 이런 공간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간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간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Solution ... 주거, 마당(balcony), 길(계도)의 관계

Concept ... 공간에서의 경계와 의미

Concept ... 변화하는 주거 패러다임
- 대한 사회에서 비대면(Digital) 사회로

unit combination ... 생활 속 거리를 고려한 공동주택계획

architecture scheme

면적 : 150m²
연면적 : 150m²
연면적 : 450m²
연면적 : 2,700m²
층수 : 22.7m
층고 : 2.7m (2층 기준)
층수 : 15F

mass process

2층 간격 크기를 이용하여 15층 높이를 구성
보통층 높이를 고려하여 2층 높이를 구성
주거층을 고려하여 15층 높이를 구성
계도층 높이를 고려하여 15층 높이를 구성
모호한 경계 속 단층 아파트의 공간 구성

황세원* 언택트시대에 대두되는 주호 유닛공간의 대응과 집합되었을때의 유연한 전략들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남성택* 복도와 발코니의 경계의 모호성을 의도한 점이 흥미롭다. 주변에 비해 두드러지는 높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스 및 입면 처리로 상당히 역동적인 도로면 만들었다.
신민재* 공용공간의 분명한 기능을 희석하여 불분명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거주자의 관계형성이 유발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master plan

floor plan

unit type

unit process

communal space process

section

perspective view

장려상

HANGING CUBE

부경대학교 | 장서윤, 박지윤



황세원* 모듈 주거 유희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변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효율적이나 건축 형태와 공간이용에 관한 세밀함이 더 필요한 부분이 다소 아쉽다.
남성택* 주거 내부에 거주자의 가변적 생활을 위한 '행잉 큐브'를 도입하고자 시도한 점이 특색있다. 물론 실제 사용에 있어 전체 공간의 자유로운 사용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존재한다.
신민재* '공간 속에 공간'을 매달아 이동시킴으로써 공간활용의 다양성을 만들고, 작은 공간의 효율을 높였다.



HANGING CUBE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가변형 공유주거 계획안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위기감 속 단거주자 자유방임 시대 사회 가치관이 급변하면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인해 생활을 지탱해줄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고민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의미 함으로 나타낸다. 이에 많은 '공간'이라는 형식, 제도, 계약, 생활, 개개 고유의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의미 함으로 나타낸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공유'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고품질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대지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610-5번지
 대지면적 : 950㎡
 건축면적 : 403.97㎡
 연면적 : 2,246.6㎡ (주거면적 48.9%)
 건축률 : 48.8%
 용적률 : 230%
 주차대수 : 지하 3층(당량면적 411.00), 지상 2층
 세대수 : 12세대, 27세대, 2인 5세대, 3인 3세대

SITE READING

서울시 영등포 목동은 주거,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여기서는 복합으로 주거와 생활시설을 공유하는 시대가 열린다. 주간에 복합생활과 다양한 커뮤니티,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밀집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지역은 복합으로 밀집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HANGING CUBE

가정주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행잉 큐브'를 제시한다. 큐브를 유닛 중심으로 배치하여 커뮤니티와 생활시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제시한다. 주간에 복합생활과 다양한 커뮤니티,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밀집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지역은 복합으로 밀집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UNIT STRATEGY

가정주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행잉 큐브'를 제시한다. 큐브를 유닛 중심으로 배치하여 커뮤니티와 생활시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제시한다. 주간에 복합생활과 다양한 커뮤니티,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밀집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지역은 복합으로 밀집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UNIT

가정주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행잉 큐브'를 제시한다. 큐브를 유닛 중심으로 배치하여 커뮤니티와 생활시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제시한다. 주간에 복합생활과 다양한 커뮤니티,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밀집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지역은 복합으로 밀집한 주거와 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가 주시대를 이끌고 있다.

FLOOR PLAN

1F (생활형, 공용공간)
 3F (소호형)
 5F (취미형)

DESIGN PROCESS

1. 목적성 및 방향성
 2. 디자인 프로세스
 3. 디자인 프로세스
 4. 디자인 프로세스

DETAIL SHOT

PARTIAL ISOMETRIC (커뮤니티)

CONCEPT

공유 생활 : 각 유닛의 공유 생활을 위해 공용 생활을 제공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공용 생활 : 각 유닛의 공유 생활을 위해 공용 생활을 제공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SECTION (종단면도)

장려상

NET IN NETWORK

홍익대학교 | 김형준, 김덕호



NET IN NETWORK

PROLOGUE
시대의 과제(기후)로 인해 일찍이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의 과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가?

CONCEPT
1. 2M x 3M의 GRID 개념의 가변성
2. 공유 공간의 FRAME & GRID 공유 공간의 가변성 인지
3. GRID를 기준으로 수직적 연결 공유 공간의 수직적 연결
4. 공간의 수직적 연결 공유 공간의 수직적 연결

UNIT TYPE
1. 1인용 주거 타입 3가지, 2-4인용 주거 타입 3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1인용 주거는 혼자 사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2-4인용 주거는 신혼부부, 직장인의 자녀를 둔 부부로 구성해 보았다.

ACTIVITY SCENARIO
1. 활동하기: 활동하기 위해 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 공간 분할하기: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하고 있다. 3. 공간 만들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4. 활동하기: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UNIT TYPE

Type 1: 1인용 주거 타입 3가지, 2-4인용 주거 타입 3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1인용 주거는 혼자 사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2-4인용 주거는 신혼부부, 직장인의 자녀를 둔 부부로 구성해 보았다.

Type 2: 1인용 주거 타입 3가지, 2-4인용 주거 타입 3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1인용 주거는 혼자 사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2-4인용 주거는 신혼부부, 직장인의 자녀를 둔 부부로 구성해 보았다.

Type 3: 1인용 주거 타입 3가지, 2-4인용 주거 타입 3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1인용 주거는 혼자 사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2-4인용 주거는 신혼부부, 직장인의 자녀를 둔 부부로 구성해 보았다.

Type 4: 1인용 주거 타입 3가지, 2-4인용 주거 타입 3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1인용 주거는 혼자 사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2-4인용 주거는 신혼부부, 직장인의 자녀를 둔 부부로 구성해 보았다.

Type 5: 1인용 주거 타입 3가지, 2-4인용 주거 타입 3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1인용 주거는 혼자 사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2-4인용 주거는 신혼부부, 직장인의 자녀를 둔 부부로 구성해 보았다.

Type 6: 1인용 주거 타입 3가지, 2-4인용 주거 타입 3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1인용 주거는 혼자 사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2-4인용 주거는 신혼부부, 직장인의 자녀를 둔 부부로 구성해 보았다.

황세원* 모듈형 구조체들이 다양한 결합방식으로 주거 유닛을 비롯하여 커뮤니티 공간계획을 잘 표현해낸 반면 이부분이 중점적으로 발전되어 전반적인 설계에 대한 한계가 있다.

남성택*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구조적, 계획적 척도용 격자로 전용한 점이 참신하다. 수정체처럼 격자체계를 건축 전반에 일반화시킨 점, 입면이 이를 드러내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옥상에서는 격자가 장식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다.

신민재* 행위와 활동을 기준으로 공간을 최소단위로 분절하고 재조합하면서, 3차원적 공간활용과 거주자 활동을 고려한 계획이다.

MASTER PLAN

1. 옥상 테라스
2. 준공공 녹지 공간
3. 계단 설치
4. 남서쪽 코어
5. 북동쪽 코어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10-5번지
대지면적: 950m²
건축면적: 472.18m²
연면적: 2,245.665m²
건물용: 437.7%
용적률: 210.262%
층수: 9층
주최: 15세대

FLOOR PLAN

1ST FLOOR, 2ND FLOOR, 3RD FLOOR, 4TH FLOOR, 5TH FLOOR, 6TH FLOOR, 7TH FLOOR, 8TH FLOOR

COMBINATION

COMBINATION 1: 1인용 x 2 + 2인용 x 2
COMBINATION 2: 1인용 x 2 + 2인용 x 1 + 3인용 x 1
COMBINATION 3: 1인용 x 2 + 2인용 x 2 + 3인용 x 1

COMBINATION EXAMPLES

COMBINATION 1 EX, COMBINATION 2 EX, COMBINATION 3 EX

PERSPECTIVE VIEW

3차원적 공간활용과 거주자 활동을 고려한 계획이다.

2020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03
GALLERY



제24회 2020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발간일 2020. 12
발간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펴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처장 이택훈
주택기준부 부장 이한성
차장 남상호
이봉재
과장 강기연
대리 김수현
최한결

홈페이지 www.lh.or.kr
전화번호 055-922-5335
편집제작 (주)씹긱커뮤니케이션(02-334-7540)

※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